

일본 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한글학교용 범용 교재 활용 방안*

이진경** · 장향실*** · 신윤경****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재일 한글학교 교사들이 한글학교용 범용 교재를 현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국가 기관에서 범용 교재를 제작·보급하고 있지만, 각 지역의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한글학교의 감소 추세에도 그 숫자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동포사회의 세대교체가 확대되면서 차세대들의 정체성 교육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글학교의 교육 내용도 일본의 현 상황에 맞게 변화되어야 하고, 교재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가 제작, 수정을 거쳐서 무료로 배포하는 범용 교재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교재 제작보다는 범용 교재를 사용하면서 일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재일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활용 방안의 기준을 잡았다. 그리고 한글학교별 교육과정 설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 이 논문은 '2023 국제한국어문화학회·일본한국어교육학회 공동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주저자, 건양사이버대학교 다문화한국어학과

*** 공동저자, 상지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 교신저자, 가천대학교 리버럴아츠칼리지

구체적인 교재 활용으로는 ‘연습 및 과제 활동 보완 방안’, ‘문화항목 확대 및 추가’로 나누어 제시했다. 이런 방안들이 계속 모색되고 적용되는 과정과 결과들이 궁극적으로는 일본 현지화 교재 제작의 기초가 될 것이다.

키워드 : 재일 한글학교, 한글학교 범용 교재, 현지화 교재, 재외동포 학습자,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재일 한글학교 교사들이 한글학교용 범용 교재를 일본 현지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현재 해외 한글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아동, 청소년용 대상의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2020,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국제한국어교육재단)¹⁾, 『맞춤 한국어』(2010, 교육과학기술부), 『한글학교 한국어』(2008,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²⁾), 『한글기초』(2010, 재외동포재단) 등과 유아용 대상의 『신나는 한국어』(2019, 국립국어원) 등이다. 이 교재들은 정부에서 제작 보급하는 교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³⁾ 하지만 전 세계의 한글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제작된 범용 교재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세밀하게

1)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는 2015년에 처음 발간된 후 2020년에 수정·보완된 개정판이 발간되었다.

2) 발간 당시의 기관명임. 현재 ‘국제한국어교육재단’으로 변경되었다.

3) 교육부의 경우 2023년 ‘재외동포용 교과용 도서 및 교재 보급사업’ 사업공모에서, 95개국 1,069개 재외교육기관에 610,902권의 교재를 보급할 사업자를 공모하였다. 이 중 한글학교가 1,002개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60여만 권의 대부분이 한글학교에 보급된다고 할 수 있다.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⁴⁾ 이 때문에 범용 교재는 현지의 실정과 맞지 않은 내용으로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끌어내기 어렵고, 현지 교육과정에 맞지 않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2023년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하였는데, 그 이유는 재외동포 수가 75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세대교체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동포사회의 세대교체가 확대되면서 차세대들의 정체성 교육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⁵⁾ 차세대들이 가지는 ‘이중 정체성’의 원활한 확립과 외국인과의 결혼한 다문화 동포 가정의 차별된 정체성 교육의 필요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차세대들의 변화는 지역별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식민지배’, ‘강제 이주’라는 역사적 특성으로 정체성 유지에 훨씬 민감했다. 그러나 현재는 재일교포 자녀들 중 현재 학령기 아동의 86%가 일본 공립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제한적으로 노출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김경령, 2019). 또 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호칭으로 ‘재일코리아, 한국계 일본인, 자이니치’라 응답하며 한국과 일본 모두를 자신의 뿌리로 인식하고 있다(요시다카르에, 2016; 마키로가르로, 2011).

또한, 한글학교 수도 지역별로 변화를 보이는데, 세계적으로 전체 한글학교 수는 감소 추세이다. 반면 아시아 지역은 한글학교와 학생 수가 계속 증가 추세인데, 그중에서도 일본의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이화숙·김남경, 2018:127). 2022년 재외동포재단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4) 『맞춤 한국어』와 2015년에 개발된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는 언어권별 교재가 개발되어 있지만, 개발된 지 오래되어 개정판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로 대체되고 있다. 개정판의 경우 영어권을 제외하고는 지역별 현지화된 교재가 발간되지 않았다.

5) 한글학교 지원연대, 『재외동포청 설립과 차세대 재외동포 교육방향 정책 간담회 자료』, 2023.04.29.

한글학교 수는 2022년 기준 128개, 학생 수는 6,531명이다. 이로써 일본은 2022년 한글학교 수, 학생 수, 교사 수가 아시아 국가 중에는 1위, 전 세계 국가별 통계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⁶⁾

이처럼 일본 재외동포 사회와 한글학교 상황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글학교의 교육 내용도 일본의 현 상황에 맞게 변화되어야 하고, 교재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범용 교재라는 한계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각 지역별로, 학교별로 교재를 자체 제작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가 제작, 수정을 거쳐서 무료로 배포하는 범용 교재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교재 제작보다는 범용 교재를 사용하면서 일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한국어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각 국가 및 지역에 맞는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에 따라 현지화 교재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현지화 교재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는데⁷⁾, 안경

6) 「2022 재외한글학교 현황」(재외동포재단): 내부 보고서라 공개하지 않음.

국가별 학교 수 TOP30			국가별 학생 수 TOP30			국가별 교사 수 TOP30		
1	미국	610	1	미국	32,527	1	미국	6,548
2	일본	128	2	일본	6,531	2	일본	1,005
3	캐나다	108	3	캐나다	6,224	3	캐나다	850
4	중국	94	4	중국	6,020	4	중국	641
5	러시아	73	5	러시아	5,364	5	러시아	518
6	호주	52	6	호주	4,672	6	호주	387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화조현용(2009), 이미혜(2009), 김선정(2009)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현지화된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정 지역 학습자 대상의 교재 개발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현지화 교재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교재 개발의 방향성을 제안한 초기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안경화·조현용(2009)에서는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사용할 교재인 『인도네시아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현지화 교재의 단원을 구성할 때 반영하여야 할 특성을 교수학습 상황 요인, 교수자 요인, 학습자 요인, 교수학습 방법 요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미혜(2009)는 베트남 대학에서 사용할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현지 특성 및 교재 사용자의 요구를 조사하여 현지화 교재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지화 교재를 국외 특정 지역의 한국어 교육 환경, 학습자 특성에 맞춰 개발한 교재라고 정의하고, 현지화 교재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 현지의 특성 및 교재 사용자의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현지화 교재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는데,⁸⁾ 현지화 교재의 개념을 정리하고 교재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선정(2009)의 연구에서도 교재 현지화의 개념을 정리하고, 한국어 교재의 현지화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프로토타입(prototype) 교재를 중심으로 현지 맞춤형’으로 개발 및 지원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

7) 현지화 교재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중반 한국 정부의 한국어 교재 현지화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8) 베트남 현지의 교육과정에 맞춘 교재는 기능 중심의 교재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며, 기능 간의 통합·분리가 유연하여 서로 다른 교과목에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베트남 현지화 교재에서 다루는 상황은 한국과 베트남 상황을 끌고루 포함해야 하며 문법, 어휘, 발음 학습 부분은 대조언어학적인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현지어 번역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고 ‘말레이시아 해외 초·중등 한국어’를 사례로 한국어 교재의 현지화에 미치는 요인, 교재 현지화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특히 현지화 교재 구성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

이후 현지화 교재에 대한 연구는 석사 논문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졌는데,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최충호(2013)는 캄보디아, 폰짜른솜마이(2015)는 라오스, 김미영(2017)과 신혜(2021)는 우즈베키스탄, 왕두위(2018)는 중국, 드조노나 예프 슈크랏(2019)은 타지키스탄, 응웬 티 닉엣 타잉(2022)은 베트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반 소논문에서 이루어진 현지화 교재에 대한 최근 논의는 이정란·이혜영·이민경·씨리랏 씨리랏(2018), 강승혜(2019), 김은경·정호선·유승원·오현아(2020), 권용혜(2021), 이미향·유은미(2022) 등이 있다. 이정란·이혜영·이민경·씨리랏 씨리랏(2018)에서는 현지 교과서 개발 시, 현지 외국어교육의 목표를 반영해야 하고, 교수·학습 상황 및 타 교과와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학입학시험 수준과의 연계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전문가와 국내 교재 개발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제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강승혜(2019)는 프랑스 파리 한글학교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프랑스 어권 재외동포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과제⁹⁾를 수행한 결과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재 개발 원리와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김은경·정호선·유승원·오현아(2020)는 몽골 초·중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초·중등학생 대상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9) 언어권별 맞춤형 교재 개발 사업,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수행된 프랑스 어권, 베트남어권 맞춤형 교재와 유아용 교재 개발.

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또한 권용혜(2021)에서는 미얀마 중고등학생을 위한 현지화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항목을 정리하고 교재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고, 이미향·유은미(2022)에서는 터키 중등 한국어 교과서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현지 교재 개발의 제변인을 살폈다.

일본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현지화 교재 및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로는 박기선(2015)을 들 수 있다. 박기선(2019)에서는 일본 한글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의 현지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한국에서 개발·보급한 교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한민족 정체성과 관련된 교육 내용 보완의 필요성과 재외동포의 특수성 및 일본 현지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바탕으로, 교재의 현지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한국과 현지 문화의 비교’와 ‘교재의 주제, 등장인물, 장소명 등의 현지 사정 반영’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일본 지역의 한글학교 교재의 현지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한글학교 교사 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한글학교 교사들의 교재 사용 현황과 현지화에 대한 구체적 요구 분석이 미흡하다. 또한 교재를 활용하거나 현지화하여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아, 문제점만을 인식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지화 교재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해외의 초·중등 및 대학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가 주였다. 한글학교 학습자나 교재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몇 편 되지 않으며, 그중에서도 일본 한글학교 교재의 현지화에 대한 연구는 박기선(2015)이 유일하다. 일본의 한글학교는 현지화 논의가 아직 활발하지 않으며, 지금 논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현지화 교재 개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우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범용 교재를 일본 지역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

을 찾아 수업에 적용하고, 후에 현지화 교재 개발 시 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좀 더 현실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 한글학교 교사들의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용 교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일본 한글학교 한국어 교재에 대한 요구 조사

2.1. 요구 조사 내용 및 방법

일본 한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재 사용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 한글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기초 설문 조사를 하고, 이 설문을 보완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차 설문 조사는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표 1〉 설문 내용

설문 항목	설문 내용	유형
한글학교 현황 및 교사 기초 정보	재직 기관 현황(지역, 학교명, 학생 수) 교육과정 교사 경력 교사 체류 유형 제1언어 한국어 교원자격증 보유 여부	서술형 서술형 선택형 선택형 선택형 선택형
주 교재 현황	주 교재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재 미사용 이유 주 교재 만족도 교사용 지침서 활용 현황 1개 단원 수업 시수 교재에서 보완되어야 할 학습활동	선택형 선택형 선택형 선택형 서술형 선택형

문화 교육	학습자의 한류에 대한 관심 교사의 한류 콘텐츠 활용도 한류 콘텐츠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 교재에서의 한국 문화 설명에 대한 생각 교재 내용 중 일본 상황, 일본 문화 관점에서 부적절한 내용 일본 상황에서 추가되었으면 하는 문화 요소 한국 문화 및 역사 내용 중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 일본 학습자의 연령 및 특성에 맞지 않는 교재의 내용이나 주제	선택형 선택형 선택형 서술형 서술형 서술형 서술형
-------	--	---

한글학교 현황(지역, 학생 수, 교육과정), 교사 기초 정보(경력, 체류 유형, 제1언어, 한국어 교원자격증 보유 여부), 사용하고 있는 주 교재, 교재 학습 활동의 보완점, 교재 만족도, 교재의 한국 문화, 교사용 지침서 활용도, 한류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도, 교사의 한류 콘텐츠 활용도, 교재 내용 중 일본 문화 관점에서 부적절한 문화 교육 내용, 일본 상황에서 추가될 문화 요소, 추가될 한국 문화 및 역사 내용, 일본 학습자 연령 및 특성에 맞지 않는 주제나 내용에 대한 총 21개의 문항으로 구글 설문 도구를 제작하였다. 일본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이메일로 설문 요청을 구하고, 구글 설문 링크를 전달하여 30명의 한글학교 교사에게서 설문 응답을 받았다.

심층 인터뷰는 1차 설문 결과의 내용을 기초로, 좀 더 구체적 현황 파악을 위한 심화 질문을 만들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 질문은 소속 한글학교 현황, 주 교재 사용 이유, 문화 수업, 교실 수업에서의 어려움, 일본 맞춤형 교재에 대한 요구 사항 등으로 구성했다.

〈표 2〉 한글학교 전문가 심층 인터뷰 참여자 기본 정보

	국가	지역	성명	소속 및 직위
1	일본	츠크바	최○○	일본 코리아문화교류협회 한글 교실 교사
2	일본	오사카	손○○	오사카 온누리한글학교 교사 오사카 스타한글학교 교사
3	일본	도쿄	전○○	도쿄샘물학교(치바현 노다시) 교장

심층 인터뷰 대상자는 30명의 1차 설문 응답자들에게 인터뷰 참여 의사를 물었다.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변이 온 교사들 중 지역별로 3명을 선정하였다. 인터뷰 진행 방식은 온라인 줌(zoom)을 통해 2시간 반 동안 연구진 3명, 한글학교 교사 총 6명이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2.2. 설문 조사 결과 분석

1차 설문 조사에서는 일본 한글학교 중 22개 기관의 교사 30명의 응답을 얻었다. 21개의 항목으로 설문 도구를 준비하였으며, 도구 제작 오류 항목 1개 항목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교사 경력

‘일본 한글학교 교사들의 경력’은 10년 이상이 46.7%로 가장 많았고, 5년-10년 미만이 26.7%, 3년-5년 미만이 13.3%, 1년-3년 미만이 13.3%로, 한글학교 교육 경력 5년 이상의 교사들이 약 73.4%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2) 교사 체류 유형

해외의 교육기관인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의 일본에서의 체류 형태’를 조사한 결과, 일본 국적자는 응답자 30명 중 1명으로 3.3%이고, 일본 영주권자가 80%, 일본 장기 체류자는 16.7%, 일본 일시(단기) 체류자는 없었다.

3) 교사의 제1언어

설문 응답자 중, 일본 국적자가 1명 포함되어 있었지만, 교사의 제1언어

어를 묻는 항목에는 100% 한국어가 제1언어로 나타났다.

4) 교사의 한국어교원자격증 보유 여부

교사 50%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보유’가 30%,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보유’가 3.3%로, 총 33.3%가 한국어교원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취득 예정, 한국어양성과정 수료, 한국어교사인증과정 수료,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교원들은 23.1%로 나타났다. 이로써 응답자의 56.4%는 한국어 및 교육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재직 한글학교의 학기 구성 및 주당 수업 시수

현 기관의 학기 구성과 주당 수업 시수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서술형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기관마다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응답을 살펴보면, 학기당 수업 시수가 아닌 1년 기준으로 ‘40주, 매주 2시간’과 같이 응답한 경우와 전체 학기 구성으로 응답한 경우 등 다양한 답변이 제출되었다. 이 응답을 통해서 볼 때, 한글학교 기관마다 학기 구성(2학기, 3학기, 4학기)이 다양하고 시수 또한 각양각색임을 알 수 있다. 교육부(2009)에서는 세계 현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한글학교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제 각각의 교육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통 기준의 한글학교용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표준교육과정의 일반적 기준과 한국어 교육과정 및 한국사 교육과정, 한국문화 교육과정의 시안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한 현장에서의 적용은 미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6) 1개 단원당 수업 시간

단원당 소요되는 수업 시간에 대한 질문에, 50분, 1시간, 2시간, 2-3시간, 3시간, 3-4시간, 6시간과 같이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 이는 사용하는 교재의 다양성,¹⁰⁾ 학습자 수준 및 연령의 상이함, 교육과정 표준 모형의 미적용으로 인한 결과라고 분석된다.

7) 주 교재 사용 현황

현재 재직 한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 교재에 대한 질문에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1~6)』(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국제한국어교육재단)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한글학교 한국어(1~6)』(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10%, 대학 기관 한국어 교재 사용이 10%, 자체 개발 한국어 교재 사용이 6.7% 순으로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는 『맞춤한국어(1~6)』(교육과학기술부), 『기탄국어』, 『できる韓国語』, 『세종한국어회화』 1, 『데키루 칸고쿠고(초중급)』, 『아름다운 한국어(초중급)』, 『가나다한국어(중급2부터 상급)』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한국 정부의 주관으로 한글학교용 교재를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응답자의 50%만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교재들이 일본 현지 및 한글학교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설문 문항을 마련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아래 7)의 주 교재 사용 현황 분석 결과, 각 한글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22개 기관에서 약 12종으로 나타났다.

8)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앞선 설문 문항에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교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문항에 28.6%가 ‘기존에 사용하던 교재가 익숙하고 편해서 그대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현지 교육과정에 맞지 않아서(한 학기 시수)’라는 응답이 7.1%였다. 또한 ‘교재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어려워서가 21.4%, ‘수강생 수준에 맞지 않아서가 7.1%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주로 한글학교 학생이 성인 학습자인 경우로 파악된다. ‘현지 상황이나 문화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서’는 7.1%로 일본 및 지역의 현지화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재를 받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14.2%인데, 이 부분은 기관에 대한 문제로 파악되며 세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9) 교재 학습 활동 관련 보완점

‘학습 활동과 관련하여 보완할 점’에 대한 응답은 ‘연습 활동 유형의 단조로움(비슷한 유형)’이 46.7%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부족하다’는 응답이 25%, ‘연습 문제와 활동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20%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교재 제공 필요(3.3%)’, ‘선생님용 교재가 없어서 대부분 학습 활동을 직접 개발하여 사용한다(3.3%)’, ‘실생활을 반영한 영상이 부족(3.3%)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를 통해 한글학교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 한글학교 교사들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연습 활동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0) 현 사용 교재의 만족도

‘현재 사용하는 교재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50%는 교재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보통이 43.3%, 불만족이 6.7%로 50%가 교재의 보완 및 개선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교재의 한국 문화에 대한 설명이 간단한 점에 대한 의견

‘현재 사용하는 교재의 한국 문화 설명’에 대한 질문으로 교재에서 한국 문화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86.7%의 교사들이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해서 조금 더 심화하여 가르쳐야 한다’로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들에게 교재 내용을 보완할 한국 문화 관련 정보 및 시청각 자료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2) 교사용 지침서 활용도

교재와 함께 제공되는 교사용 지침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53.3%가 ‘보완 및 수정하여 사용한다’고 하였고 10%가 ‘그대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교사용 지침서를 활용하되 보완 및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용 지침서가 없다’라고 응답한 30%의 주교재 현황을 살펴보니 ‘대학 기관 한국어 교재 사용 2명, 『가나다한국어』2명, 일본에서 판매하는 교재 2명’과 같이 교사용 지침서가 제공되지 않는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였다. 그러나 교사용 지침서가 제공되고 있는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없다(『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1명, 『아름다운 한국어』 1명)는 응답도 있었다.

13) 학습자의 한류에 대한 관심도

학습자들의 한류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많다’가 16.7%, ‘많다’가 63.3%로, 학습자의 80%, 즉 대부분이 한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이다’가 16.7%, ‘적다’가 3.3%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 학습자와 같은 학습자의 연령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한류에 대한 관심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한글학교 교육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습자의 흥미 유발과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14) 한류 콘텐츠 활용도

‘13)’과 연관 지어 한글학교 수업에서의 한류 콘텐츠 활용도에 대한 질문에 ‘많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3.3%, ‘적다’가 20%, ‘보통이다’가 50%로 학습자의 관심도와 활용도가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15)’ 항목에 그 이유를 물었다.

15) 한류 콘텐츠 사용이 많지 않은 이유

앞선 질문에서 ‘보통이다’, ‘적다’, ‘매우 적다’라고 대답한 이유에 대해 45.5%가 ‘교실 환경’ 문제로 응답하였다. 또한 27.3%가 ‘적합한 자료를 찾지 못해서’, 18.2%가 ‘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로 볼 때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안내·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16) 교재에서 일본 상황이나 일본 문화 관점에서 부적절한 내용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서 일본 상황, 일본 문화 관점에서 부적절

한 내용이 있으면 써 달라는 서술형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60.7%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기술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대부분 민감한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지양하고 일본 현지 문화를 중심으로 한국과 상호문화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요구들이 있다.

17) 문화 요소 중 일본 상황에서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

교재의 문화 요소들 중에서 일본 상황에 맞게 추가하고 싶은 항목의 서술형 답변을 간추려 보면, 일본의 ‘배려 문화, 친구와 가족과의 대화, 한국과 일본의 비교 문화, 현재의 일본과 한국의 문화 및 정보, 한일 교류, 일본과 한국의 다른 점’ 등이다. 이중 과거의 역사 문화보다 ‘현재의 일본과 한국의 문화 및 정보’에 대한 요구가 공통적으로 높았다. 이는 한글학교 교재에 ‘현재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일본의 상황과 함께 비교해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화 내용으로 재구성하거나 추가 및 보완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18) 한국의 문화·역사 관련하여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

한글학교 수업을 위해 ‘한국의 문화·역사’ 영역에서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한 서술형 응답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 한국의 보편적인 문화 이외의 지역적 특색을 알 수 있는 내용과 K-POP과 관련한 문화 및 교육 내용, 한국과 일본 간의 연관성이 있는 인물, 문화, 역사, 일본 성인 학습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오인하는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요구가 특징적이었다. 또한 일본 상황에서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현대 한국 문화와 상황에 대한 요구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일본 학습자의 연령 및 특성에 맞지 않는 교재의 주제 및 내용

초등학생이라는 학습자 연령 특성과 관련해서는 일본 상황에 맞는 학원 및 취미 활동의 내용, 가족이나 친척 간의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주제와 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성인 학습자를 위한 교재 마련에 대한 요구가 다수 있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교재들은 유아동 학습자를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는 한글학교의 성인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문과 콘텐츠가 제공되었으면 한다는 의견들도 다수 있었다.

2.3. 심층 인터뷰 조사 결과 분석

1차 설문 분석 결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살펴보아야 할 내용으로 질문을 구성하여 심층 인터뷰를 준비하였다. 우선 한글학교 운영 기간, 수업 시수 등이 기관마다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1) 각 기관마다 교육 현황과 교육과정에 대한 질문, 2) 주 교재 사용과 이유, 3) 문화 수업에 대한 요구도, 4) 한글학교 수업과 운영의 어려움, 5) 일본 현지화 교재 개발 시 요구사항으로 구성된 5가지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2개의 기관에서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교사 2인, 학교장 및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1인으로, 총 3인이다. 줌 미팅을 통하여 약 2시간 30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현황과 교육과정

〈표 3〉 학교 현황과 교육과정

A 학교	B 학교	C 학교
1년에 2학기 운영(4월, 9월) 주말, 일주일에 1회 1교시 또는 2교시(35-45분)	1년에 3학기제(4월, 9월, 1월) 한 달에 2-3회 수업 토요일 3시간(40분*3회) - 1, 2교시 한국어/ 3교시 한 국의 이해	1년에 2학기 운영(4월부터 시작 1달에 2회, 격주 수업 각 반마다 45분 1차시(시간은 탄력적으로 60분까지)
초중급 1개반: 한글을 모르는 반 고급반 1개반: 말하기, 글쓰 기가 가능한 반	유아반: 유치원 한글'가'반: 한국어 구사 가능 한 학생, 한글을 배워야 하는 학생 한글'나'반: 일본어만 구사하 는 학생 초급반: 초등1~4학년 중급반: 초등 4학년 이상 고급반/토픽반: 초등학교 중· 고급 수준, 2-3명	1반 4-5세 유아반 2반 6-8살 3반 8-9살 4반 9-13살: 3년까지 학습한 경력 및 학생들이 주로 2년 정 도 학습함

2) 사용하는 주 교재와 사용 이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 교재와 그 사용 이유를 물었더니 〈표 10〉과 같이 A학교와 B학교는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개정 이전의 것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C학교는 『한글 기초 상/하』를 사용하고 있었다.

〈표 4〉 사용하는 주 교재

A 학교	B 학교	C 학교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2015)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2015)	『한글학교 학생용 한글 기초 상/하』, 재외동포교육진흥재 단(2010)

온라인에서 2020년 개정판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2015년도 교재의 재고 및 기존 교재에 대한 만족으로 인해 3명의 한글학

교 교사 모두 기존에 사용하던 구버전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위 인터뷰 내용에서 볼 때, 교사와 기관에게 우선 편한 상황의 교재를 선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현재 교재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글 기초 교육을 위해 ‘한글 상/하’가 적합하다고 하였지만 새롭게 개발된 교재에 대한 정보와 교재 배포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문화 수업 현황과 요구도

문화 수업을 위해 추가되어야 할 문화 교육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전통(고전) 문화에 고착된 문화 내용보다는 현대 한국 문화를 다루는 게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도출되었다. 학생들은 옛날보다는 현재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교사도 현대 문화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 현대 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과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항상 한국 문화를 전통(고전) 문화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학습자의 흥미 유발에 어려움이 있고 상투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의 한국 식문화, 변화한 최신 한국 문화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소재로 교육하는 것이 실제적인 문화 교육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기본 교재의 내용에서도 문법 문형을 담은 다양한 예문을 일본과 한국과 비교하거나 유사한 점을 예문으로 구성하여 자연스럽게 일본, 한국 문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한글학교 수업과 교실 운영의 어려움

교사들에게 한글학교 수업과 교실 운영에서 한글학교 학습자의 자발적 학습이 어려운 유아, 초등학생을 담당할 때에 학습자들의 동기 유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세 교사 모두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록 하는 방법을 요구했다. 그리고 다수는 아니지만 문제 행동 학습자에 대한 교육과 대처 방안 등 교실 운영과 관련한 정보와 교수법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일본 현지화 교재 개발에 대한 요구도

일본 한글학교와 인터뷰에 응한 한글학교 교사들 모두 한국 정부에서 개발하여 배포하는 다양한 범용 교재를 쓰고 있었다. 1차 설문 결과에서도 일본 한글학교를 위한 교재 개발을 기다리고 있다는 설문 응답자가 많았다. 인터뷰 참여자들에게도 그러한지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그 결과 3명 모두 활동할 수 있는 실제 학습 자료 및 자료들의 제공, 일본 맞춤형 교재 개발, 유아 연령별 맞춤형 교재, 온라인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재 및 수업 자료에 대해 요청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한글학교 교사 모두 학습자 연령과 특성을 반영하고 일본 지역의 현지 상황을 반영한 교재에 대해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현지 교재가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범용 교재를 재구성하고는 있으나, 이 또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일본 한글학교의 범용 교재 활용 방안

2장의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일본 현지의 요구에 맞는 범용 교재의 구체적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활용 방안 대상으로 삼은 교재는 2020년에 개정한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1~6)』이다. 이번 설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 교재이자 최근 개정된 것이어서 향후 상당 기간은 이 교재가 보급될 전망이다. 교재 활

용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학교별 교육과정 설계의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 결과 교육과정의 설계 없이 교사 재량에 따라 교재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3.1. 학교별 교육과정 설계 필요

교육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현재 한글학교 교육의 준거로 삼을 만한 교육과정이 미비한 형편이다. 한글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재외 비정규 한글학교용 표준교육과정 체제 개발 연구(2008)’와 ‘재외 한글학교용 표준 교육과정(총론 및 각론)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해외 한글학교의 교수-학습 환경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의 요구가 높다. 따라서 ‘재외 한글학교용 표준교육과정’이 우선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교육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한글학교가 있는 국가 및 지역이 다양하고, 지역별로 재외동포 학습자의 특성, 한글학교 운영 형태 등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별 교육과정 개발의 좋은 사례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의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표준교육과정’이다. NAKS의 경우 1992년에 처음 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이어 2012년, 2021년에 개정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미국의 한글학교가 참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최상위 교육과정이다. 미국의 한글학교는 NAKS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각 학교들이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적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NAKS의 표준교육과정과 같은 한글학교용 교육과정이 국가별로 마련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가별 교육과정 개발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연구 인력이나 재정 여건 등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앞 서론

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은 2022년 기준 한글학교 수, 학생 수, 교사 수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 1위, 전 세계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협의회에서 의지를 가진다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미래의 일이고, 현재 일본 지역의 표준교육과정이 없는 상황에서 우선 학교별로라도 교육의 목표, 교육 시수,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글학교가 학기, 학기별 수업 횟수, 수업 시수 정도만 계획하고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학기, 학기별 수업 횟수, 수업 시수 등은 계획되어 있지만, 학습자의 단계별 목표나 이에 따른 교수요목, 평가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수요목은 교실 수업 상황에서 필요한 교육 내용과 순서를 체계적으로 목록화한 것이다. 교수요목은 이미 교재 제작 단계에서 설정되어 있지만, 한글학교에서 교재의 내용을 모두 다루는 것은 아니므로, 교실 수업에서 필요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순서를 체계적으로 목록화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 한글학교의 경우 그때그때 담임 재량으로 수업 단원을 선택하여 교육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모 한글학교는 부모들이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알려 주면, 교사가 이를 참고하여 교재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의 단계를 선택하고, 그중에서 일부 단원을 선택하여 교육한다고 하였다. 물론 교사의 교수 역량이 높을 경우 교육과정이 미비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설계도가 탄탄하고 구체적일 때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듯이, 교육 역시 구체적인 설계도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때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균질적인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심층 인터뷰 결과 학습자들이 구어는 유창한 편이지만 문어가 약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래서 모 한글학교의 경우 학습자들이 모

두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글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읽기, 쓰기 기능에 중점을 둔다고 하였다. 구어와 문어의 불균형은 재외 동포 아동 학습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런 경우 기능별 수업의 비중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한글학교의 경우 매년 학습자 수나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이 달라져 균질적인 수업 운영이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교육과정 체계 마련은 필요하다. 학습자의 연령, 한국어 숙달도, 한국 문화에 대한 친숙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를 설정한 후, 단계별 교육 목표, 수업 시수, 교육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본으로 상황별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

3.2. 현지 요구에 부합하는 범용 교재 활용 방안

설문 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 교재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주로 연습 활동과 문화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에 3.2에서는 두 영역을 중심으로 보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2.1. 연습 및 과제 활동의 보완

설문 문항 중 ‘교재 학습 활동과 관련하여 보완할 점’에 대한 응답이 ‘연습 활동 유형의 단조로움(비슷한 유형의 반복)’,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부족’, ‘연습 문제와 활동의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습 활동을 보완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2-1)』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의 단원 구성은 ‘이야기해 봐요 - 배워 봐요 - 듣고 말해 봐요/듣고

써 봐요 - 읽고 말해 봐요/읽고 써 봐요 - 함께해요 - 문화를 배워요'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3과, 6과, 9과, 12과는 '이야기해 봐요 - 말해 봐요 - 들어 봐요 - 읽어 봐요 - 써 봐요 - 문화를 배워요'로 구성되어 있다.¹¹⁾

〈표 5〉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2-1)』의 구성과 활동 유형

구성 체계	구성 내용	활동 유형
이야기해 봐요	대화문	
배워 봐요	어휘, 문법과 표현	· 어휘: 연결하기, 어휘 찾아 쓰기 · 문법과 표현: 그림 보고 쓰기
듣고 말해 봐요/ 듣고 써 봐요	듣기를 중심으로 한 기능 통합 활동	· 듣고 연결하기, 질문에 답하기, 듣고 맞는 답 고르기, 듣고 맞는 그림 고르기 · 기계적 드릴, 유의미한 드릴, 그림 보고 말하기, 인터뷰
읽고 말해 봐요/ 읽고 써 봐요	읽기를 중심으로 한 기능 통합 활동	· 읽고 답하기, 읽고 ○/× 하기, 읽고 맞는 답 고르기, 읽고 순서대로 나열하기 · 읽고 모방하여 쓰기, 빈칸 채우기 · 과정 중심 쓰기
함께해요	과제 활동	· 게임이나 그리기 등을 활용한 의사소통 활동
문화를 배워요	한국 문화	· 문화 소개,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비교

실문 조사에서 '연습 활동 유형의 단조로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부족', '연습 문제와 활동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많은 이유는, 연습 활동 유형이 반복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활동 유형의 반복 양상은 '배워 봐요 - 듣고 말해 봐요/듣고 써 봐요 - 읽고 말해 봐요/읽고 써 봐요 - 함께해요'까지 각 단계별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문법과 표현>은 모든 과가 다음과 같이 '그림을 보고 쓰는 활동'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11) 3과, 6과, 9과, 12과는 복습 단원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능을 분리하여 연습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연습 활동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따로 분석하지 않는다.



〈그림 1〉 〈문법과 표현〉의 연습 활동

반복되는 패턴은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낮추고 내용 기억을 쉽게 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지루한 느낌을 주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감소시킬 수 있다. 아동 학습자의 경우 특히 학습에 대한 흥미가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흥미 요소는 중요하다. 문형 연습을 쓰기 활동으로 한 것은 문어에 약한 재외동포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형 연습을 쓰기 활동으로 진행하되, ‘통제된 쓰기 연습 활동, 유도된 쓰기 활동’ 중에서 대치할 만한 활동을 선택해 수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듣고 말해 봐요/듣고 써 봐요〉의 활동은 ‘듣고 연결하기, 질문에 답하기, 듣고 연결하기, 질문에 답하기, 듣고 맞는 답 고르기, 듣고 맞는 그림 고르기, 기계적 드릴, 유의미한 드릴, 그림 보고 말하기, 인터뷰’ 중에서 단원별로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초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연습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15개 단원을 구성하려면 활동 유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읽고 말해 봐요/읽고 써 봐요〉의 활동은 ‘읽고 답하기, 읽고 ○/× 하기, 읽고 맞는 답 고르기, 읽고 순서대로 나열하기’와 ‘읽고 모방하여 쓰기, 빈칸 채우기, 과정 중심 쓰기’ 중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활동들도 초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습 활동 등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역시 활동 유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습 활동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심층 인터뷰에서 “교재의 활동이 저학년 학습자에게는 적합한 연습 활동이나 고학년 학습자에게는 양이 너무 적다. 저학년과 고학년은 학습 능력이 다르므로 학습자의 학습 능력에 맞는 연습 유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이 나온 이유는 교재에 의사소통 목적에 따른 과제(task) 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말하기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드릴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친구들과 함께 장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가: 뭐가 되고 싶어요?

나: 저는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화가가 되고 싶어요.

이 말하기 연습 활동은 학생들의 대답을 고정해 놓지 않고 자신의 정보를 사용하여 대답하도록 하는 활동으로, 형태가 아닌 의미에 초점을 둔 활동이다. 짧은 대화문 연습으로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 의사소통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역할극이나 가벼운 주제의 발표 등을 활용하여 과제 활동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쓰기 활동도 다음과 같이 ‘읽기’와 연계하여 읽은 내용을 모방하여 쓰는 간단한 쓰기 활동이 대부분이다.

글을 읽고 맞으면 ○, 틀리면 × 하세요.

읽기 텍스트 제시

- 선택형 답항 제시

2. 여러분 가족의 꿈은 뭐예요? 써 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한국어 숙달도는 낮지만, 학습 능력이 높은 고학년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활동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어 능력이 부족한 교포 학습자들에게 충분한 쓰기 활동이 제공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의사소통의 목적을 가진 쓰기, 흥미로운 쓰기 활동이 필요하다. 고학년의 경우 장르별 자유 작문 수업이 필요하며, 이때 교사가 ‘쓰기 전- 쓰기 - 쓰기 후’ 단계를 고려한 과정 중심 쓰기 수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3.2.2. 문화 수업의 교수-학습 항목 추가

한글학교에서 문화 수업은 다른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 수업보다 비중이 훨씬 크다.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교육에서 문화는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글학교용 교재에는 ‘문화’ 코너를 따로 두어 제시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3.2.2.에서는 ‘문화’ 코너에 제시된 문화 항목들을 중심으로 교재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1-6)』도 다른 교재들과 마찬가지로 ‘문화를 배워요’, ‘선생님과 함께 하는 문화’라는 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¹²⁾ 그러나 교재에 실린 문화 항목들이 적절한 것도 있지만, 보완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항목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문화 수업을 위한 교재 활용 방안으로 보완하고 추가되어

야 할 문화 항목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할 문화 항목들의 검토 기준은 앞서 실시했던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의 ‘문화’ 관련 항목 결과를 분석한 것에 기반한다. 설문 항목 16, 17, 18번과 심층 인터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문화 항목
1-1	이름, 가족 어휘, 한국의 학교(교실), 학교생활(과목, 운동회)
1-2	나이, 생일, 사계절, 해운대에 가 보세요, 한국의 동물, 설날, 태권도, 한국의 음식, 술래잡기
2-1	인기 있는 직업, 스마트폰 게임, 동요(나는 나는 자라서), 몇 시에 학교에 가요?, 순가락, 떡볶이, 반말과 존댓말, 부채춤, 율놀이, 어린이날, 공기놀이, 밥그릇, 방학
2-2	태극기, 한국 노래(사과 같은 내 얼굴), 스승의 날, 세종대왕과 한글날, 어머니날, 동요(병원놀이), 밥, 흥부와 놀부, 제기 만들기, 학교 급식, 김치, 한국의 자동차 운전석, 동요(자전거)
3-1	띠(12간지), 김밥 만들기, ‘고기잡이’ 노래, 한국 돈의 인물, 노래(저금통), 화희마을, 명절 음식, 응급전화번호, 심청, 친척, 율놀이, 쓰레기봉투, 탈춤 공연
3-2	돼지꿈, 여러 가지 기념일, 치킨 배달, 시험 보는 날 미역국 안 됨, 길거리 음식, 가족 캠핑, 한국의 병원, 삼계탕/팔빙수, 자기 컵 사용, 장래 희망, 단군
4-1	인사 관련 몸짓 언어, 이색 직업, 한국 초등학교생들의 동시, 성격 어휘, 팔빙수와 붕어빵,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씨름, 아이들의 놀이(전통놀이), 제주도, 지역 축제, 빨리빨리 문화, 외국인들이 재미있어 하는 한국의 모습
4-2	인기 있는 가수들 공통점,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청소년 여가활동, 이모터콘, 유실물 관리소, 응급신고, 민간요법, 자린고비 이야기, 돼지 저금통, 아름다운 가게, 아나바다 운동
5-1	남산과 한강, 서울의 외국인 마을, 이웃사촌,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만화 박물관, 사물놀이, 한국의 IT, SNS, 죽마고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아저씨/아주머니/이모님(존댓말), 세종대왕
5-2	아리랑, 12간지, 동요(섬집 아기), 청개구리 이야기, 한석봉, 서당, 시(정재봉 ‘강자와 약자’), 장인과 ‘장이’, 세계의 우주인들, 사라진 직업, 옛날 통신수단(봉화, 파발), 과학기술(거북선)
12) 6-1	시(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 낱씨를 알아보는 재미있는 방법, 한국의 건축양식, 독도, 정형시(송순의 ‘십 년을 경영하여’), 한국의 궁중음식, 한국의 전통 계량 단위, 침성대, 재능 기부, 한국의 예술가들, 아이돌 문화와 청소년, 한국인이 좋아하는 작가
6-2	틀러요/달라요, 한국식 이름, 시(윤동주 ‘서시’),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 명인, 한국의 10대 발명품, 아끼고 사랑해야 할 아름다운 강산, 과학 상식 퀴즈, 소설 감상, 소문 관련 속담, 한국인의 약어, 한국인의 토론 문화

〈표 6〉 재일한글학교 교사 설문 및 인터뷰 핵심 내용

설문 및 인터뷰 문항		설문 및 인터뷰 결과
설문 조사	16) 교재에서 일본 상황이나 일본 문화 관점에서 부적절한 내용	일본 현지 문화를 중심으로 한국과 ‘상호문화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요구
	17) 문화 요소 중 일본 상황에서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	과거의 역사 문화보다 ‘현재의 일본과 한국의 문화 및 정보’에 대한 요구
	18) 한국의 문화·역사 관련하여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	한국의 보편적인 문화 이외의 ‘지역적 특색’을 알 수 있는 내용, ‘현대 한국문화와 상황’에 대한 요구
심층 인터뷰	문화 교육 내용	‘현대 한국문화’를 다루는 게 필요함, 자연스럽게 ‘일본, 한국문화 상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 결과에서 보이는 공통적 키워드는 ‘상호문화’와 ‘현대 한국 문화’이다. 즉, 일방적인 한국 문화 전달이 아니라 일본 문화와 상호 비교, 학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 내용이 가능하면 현대 문화였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했던 다문화 동포 가정도 많아지고 있는 차세대의 ‘이중 정체성’ 형성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2개의 키워드에 기반해서 문화 항목을 좀 더 상세히 제시하고자 한다.

1) 상호문화주의 관점에서 ‘역사’ 추가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1-6)』는 2020년 개정되면서 문화 항목들이 많이 개선되었다. 교재의 〈일러두기〉에서도 ‘학습자들의 직접적인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한국의 최신 문화의 흐름을 교과 내용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의 관점에서 교재 내용을 전면검토’ 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초등학교 생활〉, 〈스마트폰 사용〉, 〈길거리 음식〉, 〈쓰레기 분리배출〉 등 최신 문화 트렌드를 반영하는 요소들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정체성 교육에서 중요한 ‘한국 역사’에 대한 내용은 미미한 편이다. 범용 교재라는 특성과 지역에

따라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역사’를 소홀히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문 조사나 심층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신학기가 3월부터 시작하므로 <3.1절>에 대한 내용 정도는 넣어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한·일 역사문제가 민감하기는 하지만 안 가르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김양현(2020:75)도 재외동포 학습자 교재 분석 결과로 ‘학습 대상자가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한국 역사와 정서 같은 한국의 특징들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와 재일동포(식민지 시대의 역사)의 차이’ 등을 언급했다. 따라서 특히 일본과 연관된 역사적 기념일인 <3.1절>, <광복절>은 필수 문화 수업으로 넣어야 한다. 현재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재에 <어린이날>(2-1), <스승의 날>(2-2), <한글날>(2-2) 등의 기념일이 문화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념일의 하나로 추가해서 역사적 의미를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는 역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특히 부모 중 한쪽이 일본인인 학습자들도 많기 때문에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니라 상호문화주의적 관점, 비교문화적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한글학교 교사들도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에서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교안이 필요하다, 설날 먹는 음식/쇼우카츠(1월1일)에 먹는 음식 또는 한국의 추석과 다름을 얘기해 본다, 한·일 문화 차이나 협력 협조한 이야기, 한·일 문화교류 내용 필요”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정란·이혜영(2014:286)도 재외동포 아동용 교재는 문화 내용을 구성, 기술하는 데 있어서 Seelye(1988)가 언급한 것처럼 문화상호주의적인 관점에서 한국 문화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한국 문화 전달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태어나서 성장한 현지의 문화와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기념일’의 문화 항목으로 <3.1절>, <광복절>을 추가하고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수업을 진행해 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한국의

입장에서 ‘3.1절’과 ‘광복절’의 의미, 일본에서 ‘광복절’의 의미 등을 비교해 보고,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 역사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도 식민지 역사를 갖고 있으나 독립을 한 나라들이라는 것을 학습하고, 한국도 식민지 역사를 가졌으나 독립을 위해 선조들이 수많은 노력을 했던 사실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식민지 역사가 굴욕적이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현재 한국을 만들어 낸 의미 있는 시기였음을 이해시킨다.

2) 현대적인 문화 항목 추가 및 확대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문화 교육은 흔히 ‘전통’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통적인 문화 요소 학습은 중요하다. 현재 모습의 뿌리는 전통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근간을 아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글학교의 학습자들 대부분이 아동이며 현재 한국의 상황도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무조건 전통을 고수하며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례로 한글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명절에 한복을 입고, 한국의 차례 음식이나 명절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명절에 한복은 거의 입지 않으며, 차례도 지내지 않거나 간소하게 지내는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¹³⁾ 이는 명절에 대한 인식이 차례나 한복과 같은 형식적인 것보다는 가족·친지들과 모이는 것에 더 의미를 두는 것으로 바뀌었음을 의미

13)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1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45.6%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다만 세대별로 인식 차이가 있었는데 70살 이상 응답자는 27.8%가 제사 폐지에 동의한 반면, 20대 응답자는 63.5%가 제사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여성가족부, 2020년 가족실태분석 조사 연구, 2021.09.01.)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sn=704891, (검색일: 2023.07.29.)

한다. 앞서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일러두기〉에서 ‘최신 문화의 흐름을 담았다’고 언급한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문화 학습을 위한 문화 항목은 ‘현대 문화의 추가 및 확대’이다. 현재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재에 최신 문화 항목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최신 항목이 실생활에 더 밀접할수록 학습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좀 더 현재 한국의 상황과 실생활에 밀접한 요소를 중심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4-2)』에는 〈아나바다 운동〉이 수록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나바다 운동〉이 수록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림 2〉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4-2)』〈아나바다〉 설명

그러나 요즘 한국은 공원 벼룩시장에서 중고 물건을 거래하는 것 못지않게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¹⁴⁾ 따라서

14) 당근마켓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으로 주간 이용자 수(WAU)는 1200만 명, 월간 이용자 수(MAU)는 18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당근마켓 측은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당근마켓에 일주일에 한번 이상 방문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용, 당근마켓, 누적 가입자 수 3000만 명 돌파, 매일경제, 2022.06.14.,

〈아나바다 운동〉과 함께 〈당근마켓〉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전달하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한 이해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당근마켓’은 벼룩시장과 달리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중고 물품 거래이다. IT왕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에 걸맞은 온라인 벼룩시장인 셈이다. 따라서 ‘벼룩시장’과 ‘당근마켓’의 차이점, 각각의 장·단점 등을 이야기해 보고, 일본의 벼룩시장과의 차이점까지 논의를 확대해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문화에 대한 추가 확대이다.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에는 한국 지역에 대한 주제로, 〈해운대〉(1-2), 〈하회마을〉(3-1), 〈제주도〉(4-1), 〈지역 축제〉(4-1), 〈남산과 한강〉(5-1) 등이 있다.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에서도 “지역 소개 등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어디에서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촬영되었다든지 이 지역에는 이런 문화나 이런 역사가 있다든지”, “잘 알려져 있는 경주지역 외에도 여러 지역의 문화와 음식, 김치만 해도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면 재밌을 것 같다” 등의 제안이 있었다. 물론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학습하면 좋겠지만, 기존 주제에 지역적 특색을 함께 학습하는 것이 훨씬 유기적인 교재 활용 방안일 것이다. 예를 들면, 〈사계절〉(1-2)에는 전형적인 한국의 사계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어요. 봄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꽃이 많이 피어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더워요.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서 바닷가나 계곡으로 피서를 가요. 가을에는 날씨가 시원하고 단풍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단풍 구경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겨울에는 춥고 눈이 와요. 스키를 타러 스키장에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림 3〉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1-2)』 〈사계절〉 설명

그러나 한국은 지역마다 날씨의 편차가 좀 있는 편이다. ‘대구’는 여름에 다른 지역보다 날씨가 훨씬 더워서 여름의 최고기온 기준은 ‘대구’이다. 그래서 ‘대구’와 ‘아프리카’를 합쳐 ‘대프리카’로 불리기도 한다. 또 부산은 겨울에 눈이 잘 오지 않는 곳이다.¹⁵⁾ 부산과 같은 위도이자 바닷가 도시인 목포는 연평균 눈이 내리는 일수가 26.1일이다. 부산의 4.1일에 비해 훨씬 많다. 지형적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지역별 계절 특징을 <사계절>을 공부할 때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이다. 더불어 일본의 지역별 사계절과도 비교해 본다면 훨씬 다채롭고 흥미롭게 <사계절>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문화 수업을 위한 교재 활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앞서 제시한 활용 예시들은 교재 활용의 원칙과 방향 설정을 위한 큰 틀에서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활용 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하며, 활용 방안의 내용이 되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한글학교 범용 교재를 일본 한글학교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지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범용 교재

15) 기상청은 ‘눈 일수’를 제공합니다. 눈, 소낙눈, 가루눈, 눈보라 등 어떤 형태로든 눈이 목격된 일수입니다. 부산의 30년(1991~2020년) 연평균 눈 일수는 4.1일입니다. 최근 10년은 2.9일, 최근 5년은 2.2일에 불과합니다.

김원철, 눈 훑날리자 재난 문자…부산은 왜 겨울에 눈이 안 쌓일까, <인터넷 한겨레>, 2022.12.2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2554.html, 2023.05.13.

를 현지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재일 한글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 교재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연습 활동과 문화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고에서는 두 영역을 중심으로 보완 방향을 제안하였는데, 구체적인 제안에 앞서 한글학교별 교육과정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교재 활용 방안으로는 ‘연습 및 과제 활동 보완 방안’, ‘문화 항목 확대 및 추가’로 나누어 제시했다. 이런 방안들이 계속 모색되고 적용되는 과정과 결과들이 궁극적으로는 일본 현지화 교재 제작의 기초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1. 기본자료

교육부, 『재외 한글학교용 표준 교육과정(총론 및 각론) 연구 개발』, 2009.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국제한국어교육재단,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1권~6권)』, 2020.

2. 논문

강승혜, 「프랑스어권 재외동포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 프랑스 파리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7,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12.
권용혜, 「현지화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항목 연구-미얀마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재를 중심으로」, 『반교어문학』 58, 반교어문학회, 2021.
김경근 외, 「재외 비정규 한글학교용 표준교육과정 체제 개발 연구 수정 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2008.
김경령, 「일본 한글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3-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9.

- 김미영, 「우즈베키스탄 대학 내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현지화 교재 개발 방안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김선정, 「한국어 교재, 무엇을 현지화할 것인가?」,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9.
- 김양현, 「아동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문화 항목 분석 -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일본어권)>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김은경, 정호선, 유승원, 「해외 초·중등학생 대상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22.
- 김은경, 정호선, 유승원, 오현아, 「해외 초·중등학생 대상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 「몽골 초중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20.
- 드조노나예프 슈크랏, 「타지키스탄 학습자를 위한 현지화 한국어 교재 구성 방안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마키노가르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요인 - 한일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박기선, 「한국어 교재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 일본 지역의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58-2,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 신 혜,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를 위한 초급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KFL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21.
- 안경화·조현용, 「현지화 교재의 단원 구성 방안 - 인도네시아 대학권 한국어 교재의 경우」, 『어문연구』 37-1, 어문연구학회, 2009.
- 왕두위, 「중국의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통합 교재 개선 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오지혜,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쟁점과 과제: 표준화와 현지화의 문제」, 세계한국어한마당 국제학술대회, 국립국어원, 2022.
- 요시다카르에, 「재일동포 아동 학습자를 위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 연구 - 관서 지방 어린이 토요 학교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응웬 티 닉엣 타잉, 「베트남 대학생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구성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 이미향, 유은미, 「국의 중등교육기관 한국어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제 변인 연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22.

- 이미혜, 「베트남 지역 한국어 현지화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교육』 2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9.
- 이정란·이혜영·이민경, 씨리넷 씨리랏, 태국 중등학교 한국어 교과서 개발, 『이중언어학』 73, 이중언어학회, 2018.
- 이정란·이혜영, 「재외동포 아동을 위한 학습자 중심 한국어 교재 개발」, 『이중언어학』 56, 이중언어학회, 2014.
- 이화숙·김남경, 「재외동포대상 한글학교의 현황과 과제」, 『민족연구』 72,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018.
- 정영근, 「재외 한글학교용 표준 교육과정(총론 및 각론) 연구 개발」, 교육과학기술통보, 2009.
- 최충호, 「캄보디아의 한국어 교재 현황과 캄보디아 현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폰짜른쌌마이, 「라오스 현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 구성 방안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홍동희, 「이집트 내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교육연구』 18, 한국어교육연구학회, 2023.
- 황 신, 「중국 내 현지화 한국어 교재 개선 방안 연구: 초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충북대 석사학위논문, 2022.

3. 인터넷 자료

- 김원철, 「눈 흘날리자 재난 문자...부산은 왜 겨울에 눈이 안 쌓일까」, 『인터넷 한겨레』, 2022.12.2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2554.html, 2023.05.13.
- 여성가족부, 「2020년 가족실태분석 조사 연구」, 2021.09.01.,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91, 2023.05.13.
- 홍성용, 「당근마켓, 누적 가입자 수 3000만명 돌파」, 『매일경제』, 2022.06.14., <https://www.mk.co.kr/news/business/10348897>, 2023.05.13.

Abstract

How to Use Universal Textbooks for Teachers
in Japanese Hangeul Schools

Lee, Jin-kyoung* · Chang, Hyang-sil** · Shin, Yoon-ky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for Korean language school teachers in Japan to utilize universal textbooks for Korean language schools in a localized manner. Currently, universal textbooks are produced and distributed by national organizations, bu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n detail.

Japan is a country where the number of Hangeul schools is increasing despite the global trend of decline. It is also a country that is facing a new phase of identity educ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as the generational change in the Korean community is expanding. Therefore, the educational content of Hangeul schools should be adapted to the current situation in Japan, and the textbooks should reflect this.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necessary to utilize the advantages of universal textbooks produced, modified, and distributed for free by the Korean government. Therefore, rather than creating new textbooks, this study proposes a plan to use universal textbooks while modifying and supplementing them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regions.

First, we conducted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eachers of Hangeul schools in Japan to establish a baseline for utilization. Then, we proposed the need for curriculum design for each Hangeul school, and suggested specific ways to utilize the textbooks, which were divided into

* Konyang Cyber University
** Sangji University
*** Gachon University

'supplementing exercises and task activities' and 'expanding and adding cultural items'.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e ongoing exploration and application of these measures will ultimately serve as the basis for the production of Japanese localized textbooks.

Keywords : Korean Language Schools in Japan, Universal Textbooks, Localization, Textbook Utilization, Heritage Learners, Korean for Heritage Learners

이진경

전자우편 : mutal6929@gmail.com

장향실

전자우편 : jhs-korea@hanmail.net

신윤경

전자우편 : ykshin1905@hanmail.net

논문 접수일 : 2023. 07. 31.

심사 완료일 : 2023. 09. 15.

게재 완료일 : 2023. 09. 30.